

순위 뒤흔드는 게임신작들

일부 콘텐츠가 매출 순위 상위권을 독식하며 고착화 우려를 낳았던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넷마블게임즈의 '레이븐'이 출시 직후 곧바로 매출 1위에 오르며 파란을 일으킨 가운데, 다양한 신작 게임들이 순위를 뒤흔들고 있다. 이밖에 2015년 상반기 기대작들이 5월에 줄줄이 출격할 예정이어서 그 성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웹툰 '뮤 오리진', 출시 6일만에 매출 2위 돌풍



디아블로 기획자의 신작 '크로노블레이드'



300여종 영웅캐릭터 '히어로즈킹덤' 기대주

최근 대작 모바일게임들의 연이은 출시로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다. (왼쪽부터) 지난달 28일 출시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웹툰의 '뮤 오리진'과 출격을 앞둔 넷마블게임즈의 '크로노블레이드', NHN엔터테인먼트의 '히어로즈킹덤'.

모바일게임 '5월의 전쟁'

오늘 컴투스 RPG '이스트레전드' 등
모바일대작 게임들 5월 줄줄이 출시

●웹툰 '뮤 오리진' 돌풍

가장 눈에 띄는 주인공은 웹툰의 '뮤 오리진'이다. 지난달 28일 출시한 이 게임은 6일 현재 구글플레이 매출 2위를 기록하며 '레이븐'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PC온라인게임 '뮤 온라인'의 세계관과 방대한 콘텐츠를 모바일로 이식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전민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먼저 서비스해 현지 iOS마켓 매출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큰 인기를 모은 바 있다.

넥슨의 액션RPG '탐오브랜커'도 매출 11위에 오르며 바람몰이를 하고 있다. 3D그래픽의 개성 넘치는 캐릭터와 실시간 전투가 강점이다. 33종의 다양한 캐릭터와 장비를 육성하는 재미, 보스 몬스터와의 박진감 넘치는 전투 등도 흥행 요소다. 매출 13위에 랭크된 엔트리스소프트의 '소환사가 되고 싶어'

도 주목받는 신작. PC온라인게임 '트릭스터'를 모바일 환경에 맞게 재탄생시킨 게임으로, 2D그래픽으로 표현한 800여종의 캐릭터와 화려한 일러스트가 특징이다.

'하스스톤: 워크래프트의 영웅들'의 스마트폰 버전은 매출 14위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전 세계 2000만명이 넘는 이용자를 확보한 PC·태블릿PC게임 '하스스톤'의 모바일버전이다.

하루 전 세계 1억명이 즐기는 글로벌 박히트 게임 '캔디크러쉬 사가'의 후속작 '캔디크러쉬 소다'도 매출 15위를 기록하며 순위권 변동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히어로즈킹덤 등 5월 출격

모바일게임 시장 변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기대작들이 5월에 줄줄이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게임

강자 넷마블게임즈의 경우 이미 지난 달 30일 어벤져스를 포함한 마블 히어로들이 총출동하는 '마블 퓨처파이트'를 내놔 기대를 모았다. 이 게임은 매출 순위를 16위까지 끌어올렸다. 넷마블 게임즈는 또 'GTA' 시리즈의 아버지 데이브 존스와 '디아블로'의 메인 기획자로 참여한 스티그 헤드런드가 개발한 대작 '크로노블레이드'의 사전 등록도 받고 있다.

5월 출시 예정인 NHN엔터테인먼트의 '히어로즈킹덤'도 각각변동을 일으킬 기대주로 꼽힌다. 엠플러스소프트가 개발한 이 게임은 이용자가 직접 성장시키는 '캐슬'을 바탕으로 300여종의 개성 넘치는 영웅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모바일 액션RPG다.

이밖에도 7일 출시하는 컴투스의 풀3D RPG '이스트레전드' 등 모바일대작 게임들이 5월 다수 출시를 앞두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이통3사 1분기 수익성 개선...단통법 효과봤나?

단통법 시행 이후 마케팅비용 감소 영향
지난해 비정상적 과열...기저효과 분석도

지난 1분기 이통통신3사 수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에 따라 마케팅 비용이 감소한 결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시장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됐던 지난해 1분기와 단순 비교해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SK텔레콤은 1분기 매출 4조2403억원, 영업이익 4026억원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매출

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9%, 영업이익은 59.5% 상승했다. 앞서 실적을 발표한 KT와 LG유플러스도 지난해에 비해 수익성이 개선됐다. KT의 1분기 영업이익은 320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5.3% 증가했고, LG유플러스의 경우 36.7% 늘어난 154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에 따른 번호이동 시장 안정화로 마케팅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SK텔레콤의 1분기 마케팅비용은 846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2% 감소했다. KT(7082억원)와 LG유플러스(5038억원)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6% 줄었다.

이동통신사들은 이에 대해 지난해 1분기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지난해 1분기에는 연이은 보조금 대란 등 유례없는 마케팅 경쟁으로 시장이 크게 과열된 시기였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말 대규모 명예퇴직으로 일회성 비용이 발생한 KT를 제외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지난해 4분기에 비해 오히려 영업이익이 줄었다.

또 통신사 수익성 지표인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도 하락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지난해 1분기는 비정상적 시장 과열에 따라 마케팅 비용이 급증한 시기였고, 지난 1분기 실적이 개선된 것은 그에 따른 기저효과(Bas e Effect)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내년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의 통합을 앞두고 6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국민생활체육진흥포럼 현장. 양형모 기자

“체육단체 통합, 기능확대 중요”
국민생활체육회 포럼서 지원방안 등 논의

6일 오후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국민생활체육진흥포럼이 개최됐다. 2016년 3월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의 통합을 앞두고 체육인들의 뜻과 지혜를 모으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의 장이다. 이날 포럼은 국민생활체육회와 한국체육학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했으며, 체육 유관단체 관계자 등 350여명이 자리했다.

포럼은 이종영 교수(한국체육대학교)의 '한국체육 발전을 위한 체육단체 통합방향' 주제발표로 문을 열었다. 이 교수는 통합을 위해서는 체육단체 통합의 목적을 잃지 말아야 하며, 조직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합과정에서 기구와 인원축소보다는 기능 확대를 통한 기구 및 인원 증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발제와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손석정 교수(남서울대학교)는 '통합체육회 출범을 위한 극복과제' 발제를 통해 두 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기득권과 피해의식,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채재성 교수(동국대학교)는 지역체육단체와 종목단체의 효율적 통합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를 위해 양 단체의 중복종목 통합, 중복별 단체의 구분과 회원가입 문제, 통합단체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김양례 박사(한국스포츠클럽정책개발원 정책개발실)는 체육복지와 선진형 스포츠시스템 정책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발제 후에는 체육단체의 효율적인 통합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허리디스크엔 인공디스크치환술이 대세

면역력이 강해야 내 몸이 건강하다

허리통증, 알았다가 큰 코 다친다. 허리통증의 근본원인은 단순 근육통에서부터 위험성 높은 척추질환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필수다.

허리통증의 전형적인 척추질환으로는 허리디스크를 꼽을 수 있다. 허리디스크란 디스크 혹은 갑작스러운 충격을 이유로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손상을 입고 본래 위치에서 밀려나오는 질환이다. 디스크의 이탈은 주변 신경을 자극해 허리통증을 유발한다. 이 때 허리를 지나는 신경은 허리뿐 아니라 하반신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경과에 따라 허리통증에 더해 다리 저림과 같은 신경이상 증세를 동반하게 된다.

●디스크 손상 자체를 치료하는 '인공디스크치환술'

허리디스크를 조기에 자각하고 치료하는 경우 굳이 수술적 치료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된다. 하지만 오랜 방치로 인해 이미 디스크의 손상이 심각하고 이로 인해 주변 조직에 유착이나 염증이 진전된 경우라면 수술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손상이 일어난 디스크의 기능 자체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손상된 디스크를 치료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강남베드로 병원(양재역 4번 출구 위치)에서 시행 중인 인공디스크치환술을 꼽을 수 있다.

인공디스크치환술은 손상이 커진 디스크 자체를 제거하고 인공의 디스크를 대체 삽입해주는 수술로 국소마취 상태에서 진행되며 고령의 환자들에게도 무리 없이 시 도해볼 수 있는 치료방법이다. 치료는 복부를 약 3~4cm가량 작게 절개한 뒤 진행되

며, 이후 손상된 디스크와 주변 이물질을 제거한 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최적화 인공디스크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치료는 전 과정을 치료기구에 내장된 미세현미경을 확인하며 행해지기 때문에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치료가 가능하다.

●치료 후 사흘이면 퇴원 가능...일주일이면 정상 사회생활

치료 이후에는 3일 정도의 휴식기간을 거치고 난 이후 퇴원이 가능하다. 또, 이후 회복속도 역시도 비교적 빠르게 나타나 시술 일주일 후부터는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가능하다.

하지만 치료가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치료가 의존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평소 생활관리에 힘써 질환 발병 이전에 예방을 해주는 것이 적절하며, 질환이 발병하더라도 조기에 병원을 찾아 완치의 확률을 높이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다.

강남베드로병원 윤강준 원장

제품(ZMA)을 제외한 제품에서 아날린이 검출됐다. 아날린은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서 잠재적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호흡곤란, 점막성 피부염, 피부알레르기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연라텍스 한량에 따라 제품별 가격차는 최대 4배 이상 벌어졌다. 컨사이즈 12개 제품 중 젤코사 제품(TQL-1700H, 천연라텍스 함유량 80%)이 189만9000원으로 가장 비쌌고, (주)신록 제품(보피첼리, 43%)은 39만500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www.smartconsumer.go.kr)내 비교공감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성열 기자



▲카페스노우 5종

▲베지밀 우유두유

▲쁘띠첼 스위트롤 프레시밀크

상온 제품도 이젠 냉장시대
웰빙 트렌드에 장류·베이커리 등 변신

장류, 드레싱, 베이커리 등 상온 보관 제품들이 냉장 타입으로 대거 변신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보다 신선하게 즐길 수 있는 냉장 제품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는 웰빙 트렌드와도 연결되어 있다. 상온이 아닌 냉장 보관에 맞춰 보존료 등 첨가물을 넣지 않거나 최소화한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더 건강한 음식을 즐길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봤다.

대성 청정원은 신선한 갖은 양념이 들어 있어 추가 양념이 필요 없는 냉장 장류 4종을 선보였다. 먼저 짜개용 간편 장류인 '그대로 끓여도 구수한 된장짜개'와 '그대로 끓여도 깊은맛 우렁면장짜개' 등은 신선한 재료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 깊은 맛을 낼 수 있다. 냉장 참장도 인기다. 야채와 해물, 고추양념을 넣어 고기쌈에 적합한 황금물결로 만든 '고기한쌈 패름쌈장'과 호두, 아몬드, 땅콩 등 몸에 좋은 견과류를 듬뿍 넣어 고소한 맛을 살린 '야채한쌈 고소쌈장' 등은 기존 장류 대비 소용량(300g)으로 출시돼 냉장 보관하면서 더 신선하게 즐길 수 있다.

냉장두유도 출시됐다. 정식품에서는 식물성 두유에 우유를 균형 있게 혼합해 영양밸런스를 맞춘 '베지밀 우유두유'를 지난해 출시했다. 이 제품은 콩의 속살을 그대로 갈아 만든 두유액과 1등급 A원유를 혼합해 부드럽고 깔끔한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신개념 냉장 두유다. 기존 멸균 두유의 단점인 영양소 파괴와 텁텁한 맛을 보완해 신선한 맛으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디저트·베이커리류도 냉장 제품이 뜨고 있다. CJ제일제당이 최근 출시한 '쁘띠첼 스위트롤'은 롤케이크 중앙에 신선한 크림을 듬뿍 담아낸 슬라이스 형태의 냉장 디저트롤이다. 삼립 식품도 냉장 디저트 시리즈인 '카페 스노우' 시리즈를 출시했다. '카페 스노우'는 베이커리와 카페에서 즐길 수 있던 프리미엄 디저트를 가까운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품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